

# 한국 '10-10' 복싱·태권도에 달렸다

금메달 10개 종합 10위



김정주

## 복싱 김정주 '동' 확보...20년만에 '금' 도전

## 태권도 남 손태진·여 황경선 등 선전 기대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20년만에 금메달 한풀이  
에 나선 복싱이 한국의 막판 메달레이스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목표는 ‘금메달 3개  
이상’, 베이징올림픽 태권도에는 64개국 128명이 출  
전, 남녀 4체급씩 8체급에서 메달 경쟁을 한다.

한국은 여자 입수정(22·57kg급) 황경선(22·67kg  
급), 남자 손태진(20·68kg급) 차동민(22·80kg 이상  
급) 등 4체급에서 ‘금빛 발차기’에 나선다.

특히 한국대표팀은 지난 18일 열린 대전추첨에서  
대부분 금메달을 다룰 강호들과 초반 맞대결을 피하  
면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21일 경기에 나서는 여자 57kg급 입수정은 1회전  
에서 대만 강호 수리웬만 꺾으면 무난한 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체적 조건에서 밀려 힘겨운  
레이스가 예상됐던 남자 80kg이상급 차동민은 난적  
다보 모디보 케이타, 파스칼 켄틸(프랑스) 알렉산드  
로스 니콜라이디스(그리스)등과 반대편 블록에 편  
성돼 초반 체력을 비축하며 금메달을 준비할 수 있  
게 됐다.

22일 확실한 금메달이 기대되는 여자 67kg급에 출

전할 황경선(22·한  
국체대)은 첫 관에서  
와일드카드를 참가  
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공주 셰이카 마이타  
모하메드 라시드 알 막툼(28)은 가볍게 꺾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걸림돌은 글리타 에광(25).

에광과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만나  
1-0으로 힘겹게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베이징  
올림픽 세계예선에서는 결승에서 2-6으로 패했다.

상대전적 1승1패로 이번 리턴매치가 진정한 최강자  
를 가리는 자리다.

복싱에서는 170cm로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  
한 복싱 웰터급(69kg) 선수중 가장 작은 김정주(27·  
원주시청)가 한국 복싱 20년 금메달 한풀이 나선다.

4강에 올라 3~4위전 결과에 상관없이 동메달을  
주는 규정에 따라 이미 메달을 확보한 김정주는 22  
일 베이징 노동자체육관에서 바키프 사르세크바에  
프(27·카자흐스탄)와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  
을 벌인다. 사르세크바에프를 꺾으면 은메달이 확보  
된다. 복싱 은메달은 1996년 애틀랜타대회(이승배)



황경선



입수정



차동민

이래 8년 만이다. 하지만 복싱이 2004년 아테네대회  
동메달리스트 김정주에게 기대하는 메달 색깔은 은  
이 아니라 금이다.

지난 11일 유럽 강자 콜가이 케트 야크(독일)를  
힘겹게 꺾은 김정주는 17일 8강에선 체급 우승후보  
드미트리야스 안드라이드(미국)를 11-9 관점으로  
눌렀다. 22일에 맞붙게 될 준결승 상대인 사르세크  
바에프는 2005, 2007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했고,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선 5위에 올랐다. 키는  
173cm로 크지 않지만 김정주가 약점을 보이는 왼손  
잡이다. 준결승 다른 쪽에선 카를로스 반토 수아레  
스(22·쿠바)와 하나티 쓰리무(24·중국)가 대결한  
다. 실력만 보면 수아레스가 까다롭지만 홈 링 이점  
을 얻은 하나티도 만만치 않다. 김정주는 22일 준결  
승은 물론 24일 결승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자  
세로 한국 복싱 20년 한을 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손태진

## ■ 배드민턴 회복금...화순 출신 이 용 대

지난 17일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에서 이효정과 짝을 이뤄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위디안토-릴리야나 조를 2-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화  
순실고 출신 이용대(20·삼산전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TV 카메라에 날린 ‘살인 윙크’ 세레머니는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화순  
초등학교 3학년 때 워낙 똥똥해 살을 빼기 위해 배드민턴을 시작했다는 이용대  
는 화순중 3학년 때 깜짝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화순실고 2학년 때부터는 국가대  
표 주전으로 활약했다.



## “인터뷰 요청 많아져 금메달 땀구나 실감”

다음은 20일 이용대와 문답.

- 금메달을 딴 후 기분이 어떤가.

▲ 처음엔 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인터뷰 요청도 많고 인터넷  
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 ‘아 정말 금메달  
을 땀구나’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다.

- ‘윙크’ 때문에 신드롬이 일 정돈데, 왜  
그런 세리머니를 했는가.

▲ 진짜 생각없이 나온 행동이다. 기분  
이 너무 좋았고 감동받아서 인사하려 갈려  
는데 옆에 카메라가 보이길래 나도 모르게  
윙크를 하고 말았다. 그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엄마한테 보낸거  
다.

- 어머니과는 통화를 했나.

▲ 금메달 따자마자 바로 전화했는데  
잘했다고 해주셨다. 지금도 매일 통화하  
고 있다.

- 지금 인기를 실감하는가.

▲ 여기서는 제대로 실감이 안난다. 한  
국에 돌아가면 실감날 지도 모르겠다. 하  
지만 기분은 진짜 좋다.

- 여자친구는 있나.

▲ 1년의 대부분을 태릉선수촌 아니면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만날 시간도  
없다.

- 스무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땀다. 인생  
이 달라질 것으로 보나.

▲ 솔직히 말하자면 병역문제가 해결된  
것이 너무 좋다.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이  
런 저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  
는데 모든 짐을 털어버린 느낌이다.

- 앞으로 올림픽을 몇 번이나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최소한 세번은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네번째 나가게 되면 16년 뒤인데 그건 아  
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구체적인 메달 목  
표는 없지만 금메달을 최대한 많이 땀다면  
더 좋겠다.

- 19일 가진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연예  
인이 김하늘이라고 했는데

▲ 갑자기 기자들이 물어보니 김하늘씨  
가 생각나더라. 지금 다시 물어본다면 좋  
아하는 연예인은 김하늘씨고, 한번 만나보  
고 싶은 연예인은 김태희씨다. 진짜 예쁜  
잖아요~.

/연합뉴스



## 발차기 누가 득점했나?

20일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열  
린 경기를 펼치고 있는 포르투갈의 페드로  
포보아(아래)와 도미니카공화국의 율리스 가브리엘 메르세데스.  
/연합뉴스

## 중국 체조·다이빙 금 ‘썩쓸이’...1위 굳히기

공룡 중국의 사상 첫 종합우승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행진을 주도한 일부 종목의 썩쓸이가 눈에  
띈다.

중국은 육상과 수영 등 많은 메달이 걸린  
종목에 강한 미국에 맞서 사격, 역도, 체조,  
배드민턴, 탁구 등 강세종목에서 최대한 선  
전, 종합 우승을 이끈다는 전략이었고 예상  
이 적중하면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특히 4년 전 아테네올림픽과 8년 전 시드  
니대회를 비교하면 중국 전락종목의 초강세  
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9명을 출전시킨 역도  
에서만 8개를 따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만 대표로 선발전과 작전이 적중했다.

체조는 중국이 1위를 달리는데 가장 혁혁  
한 공을 세운 효자 종목이다. 남녀 기계체조  
14개 중 금메달 9개를 획득했고 남녀 트램폴  
린도 석권하는 등 11개를 벌였다. 아테네올  
림픽 기계체조에서 달랑 1개만을 땀던 것에  
비춰보면 엄청난 수적이다.

금메달 8개가 걸린 다이빙에서 중국은 19  
일까지 6종목에서 다 땀다.

전 종목 제패를 노리는 탁구도 일단 남녀  
단체전에서 정상을 밟으면서 순항 중이다.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을 제치고 예상  
치 못한 금메달을 따는 등 강세종목에서 시  
작된 금메달 파장이 다른 종목으로 확산 중  
이다.



올림픽 소식

## 중국 메달리스트 ‘돈방석’ 앓을 듯

### 엔징맥주 “金 1억5천만원”

○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중국 선  
수들이 돈방석에 올라 앉게 될 것으로 전망.  
리푸청(李福成) 엔징(燕京)맥주그룹 회장  
은 19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  
게 100만위안(1억5천만원), 은메달 수상자  
에게는 50만위안(7천500만원), 동메달 수상  
자에게는 20만위안(3천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도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을 아테네  
올림픽 때보다 5만위안(750만원) 늘리겠  
다고 약속해 메달 수상자들은 25만위안  
(3천750만원), 은메달은 20만위안(3천만  
원), 동메달은 13만위안(1천950만원)의 현  
찰을 받게되며 메달을 딴 선수들은 금역이  
확정되는 않았지만 출신 고향의 성정부  
나 시청부로부터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  
정.

### 펠프스 “중국어 정말 어려워”

○ 올림픽 사상 첫 8관왕의 위업을 달성  
하며 ‘불가능은 없다’를 몸소 실천한 수영왕  
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가 수많은 한자  
의 뜻을 이해하고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 중  
국어 배우기의 어려움을 토로.

펠프스는 20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  
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어를 배우  
는 것은 수영장에서 금메달 8개를 따는 것 보  
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내 인생을 통틀어 도  
전해본 모든 과제 중 가장 어렵다”고 ‘깜짝’  
고백.

### 류상, 팬들에 재기 약속

○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부상으로 경  
기를 포기한 중국 육상영웅 류상이 블로그  
를 통해 팬들에게 재기를 약속.

류상은 19일 중국 포털사이트 소후닷컴의  
개인 블로그에 ‘날 믿어달라. 돌아올 것이다’  
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부상에서 회복한 후  
빨리 경기장으로 돌아와 훨씬 더 좋은 성적  
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겠다”  
고 다짐.

현재 몸상태에 대해 류상은 “발에 부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통증이 있어 걷기조차  
불편하다”며 “코치와 의사 모두 많이 걷지  
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브라질 올림픽조직위 해킹 당해

○ 지난 19일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자축  
구 준결승에서 속적 아르헨티나에 0-3으로  
져 월드컵 최다 우승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브라질이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웹사이트  
트마지 해킹당하는 등 악재가 연발.

해커들은 19일 브라질 올림픽조직위 웹사이트를  
해킹해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브라  
질은 이번 올림픽에서 죽을 수 있다”는 등  
브라질 선수들을 비관하는 내용들을 대신  
올려놓았다고 브라질 신문은 인용해 AP 통  
신이 20일 보도.

### 와디리 여성수 마라톤 수영 16위

○ 교통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은 남아프  
리카공화국의 나탈리 뒤 투아(24)가 마라톤  
수영에서 16위를 차지.

뒤 투아는 2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순이 조  
정가누경기장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  
픽 여자 마라톤 수영(10km)에서 2시간00분  
49초9에 물살을 갈라 전체 25명 가운데 16  
번째로 끝인.

### 中 언론 장미란 높이 평가

○ 중국 언론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베이징올림픽  
역도를 총평하는 기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3개국에 떠오르고 있  
다”면서 “장미란은 최종량급 세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여자’란 타이틀을 안았고 그에게 맞설 선수  
도 없었다”고 보도.

### IOC 선수위원 오늘 발표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투  
표가 20일 마감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발  
표된 결과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  
도 영웅’ 문대성(32·동아대 교수)의 당선여  
부가 관심.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 신설된 IOC 선수  
위원의 출마자격은 선수출신으로 제한되며  
임기 8년에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고 4명을 뽑는 이번 선  
거에는 총 29명이 도전.